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선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선교편지는 자그레브가 아닌 서울 상계동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흘 전, 3월 13일(토)에 검사와 치료 차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고, 현재 입국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상태가 우려할 정도로 많이 약해졌고, 통증과 체중의 감소, 무기력과 수면장애 등으로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크론병의 재발과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격리가 끝나는 대로 아산병원에 30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현지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도움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심려를 드려 송구하며, 한국에 있는 동안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중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에 없던 귀국이긴 하나, 저에겐 쉼과 안식이 필요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졌고, 이를 영으로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차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귀국과 현재 누리는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위로요 감사입니다.

## 1. 코로나19와 교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견디려고 했고, 교회도 비대면 모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명맥을 유지하나 예배의 제단이 쇠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교육도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끼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였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삶에 근본적이며 필수이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틈타 교인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 시험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교회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동역자로 불렸던 자가 실망과 분열의 중심에 서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한동안 침체기 속에서, 낙심했고 좌절했으며, 무력해졌습니다.

이런 상심의 터널 속에서 주께서는 저에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셨으며, 선교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 하루를 견디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로 기도하며, 애통과 아픔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 나날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날은 지진이 나서, 책상 밑에 몸을 숨겨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돌아 보니 교회의 시련은 교회뿐 아니라, 나를 만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었고, 교제였고, 사귀이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던 나를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에 태풍이 와 추수할 농작물을 쓰러뜨려 버리듯, 교회도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후, 쓰러진 것 같이 보입니다. 2021년 올해는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어느 다른 해보다 더 약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듯, 교회도 시련을 통해 영적 쪽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실체가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가면을 쓰고 있던 자들이 변화되길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여전히 누룩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음을 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경계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떤 신자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인지라 선한 것 같은데 악하고, 악한 것 같은데 선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그들의 인격이나 성격이 아니라 주를 향한 참된 행함과 인내에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지만, 할수록 배웁니다. 또한 목회는 인간이 감히 감당 할 수 없는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며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목사가 없는 교회를 성실히 지키고, 섬기는 자그레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한국으로 보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 2. 학교

교회가 '한인 사역'이라면, 학교는 '현지 사역'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통닭'처럼, 한인 사역과 현지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는 나를 보고 '선교사'가 아닌 '한인교회 목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선교지에는 상황화 전략(현지에 적합한)이 필요 하듯이, 이곳의 선교 전략은 '자립 선교'입니다.

자립이란 함은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연합의식 가진 크로아티아 내의 개신교 상황 속에서 한국인 선교사로서 스스로 생존하고,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자립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이 생각과 결정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체류문제로 인해 현지 교회에 종속되거나 침해 없이 동역하게 되었고, 크로아티아 내 각기 다른 현지교단이나 목회자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도울 수 있었으며, 또 현지 교회에도 피해를 주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상호간의 마찰이 없이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학교입니다. 둘 모두가 다 잘 할 때는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아프게 하면, 교회가 위로해 주고, 교회가 낙심케 하면, 학교가 위로해 줍니다. 지금은 학교가 위로해 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세 명의 교사를 더 뽑았습니다. 학교에서 2년 이상 함께 배우고 생활한 현지 젊은이들인데, 모두 학교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또한 헌신으로 학교를 섬기는 한국인 선생님도 생겼습니다. 이젠 한국 선생님과 현지 선생님의 비율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수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반(읽기반)에는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며, 사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현지인 학생들을 보면 용기와 소망이 다시금 솟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학기 장학금 전달



한글학교 교사들

### 3. 페트리냐(Petrinja) 지진 피해 지역

페트리냐는 지진 후 수 많은 이재민과 도시의 기능이 상실할 정도의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올 해 초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을 요청 드렸고, 동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섬김으로 귀한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2주 후부터 페트리냐 지역을 방문하며 그곳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섬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페트리냐 방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피해 복구와 그곳 이재민들의 치유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라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섬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역에 제약이 많고 또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페트리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동역자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페트리냐 도심과 페트리냐 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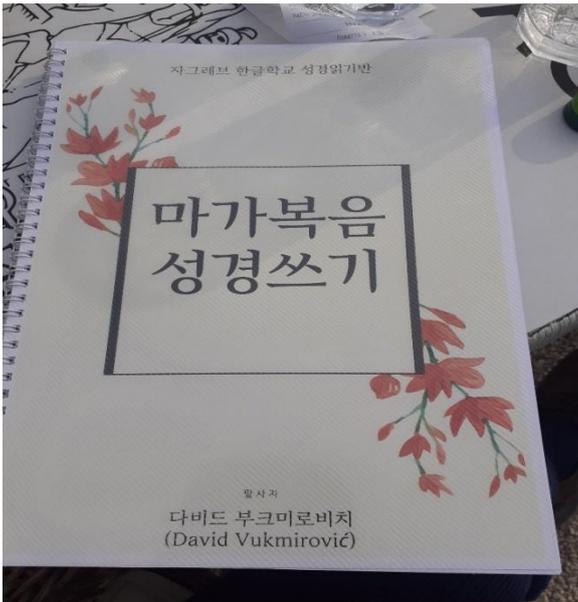
#### 4. 크로아티아 군선교회, 개별 복음 사역

크로아티아 군선교회는 회장 드리젠이 그 중심에서 코로나19 와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 새벽 기도모임을 하고 있고, 저도 온라인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드리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한국 신자들의 뜨거운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지, 크로아티아인 치고는 독특하게 매달 초 하루 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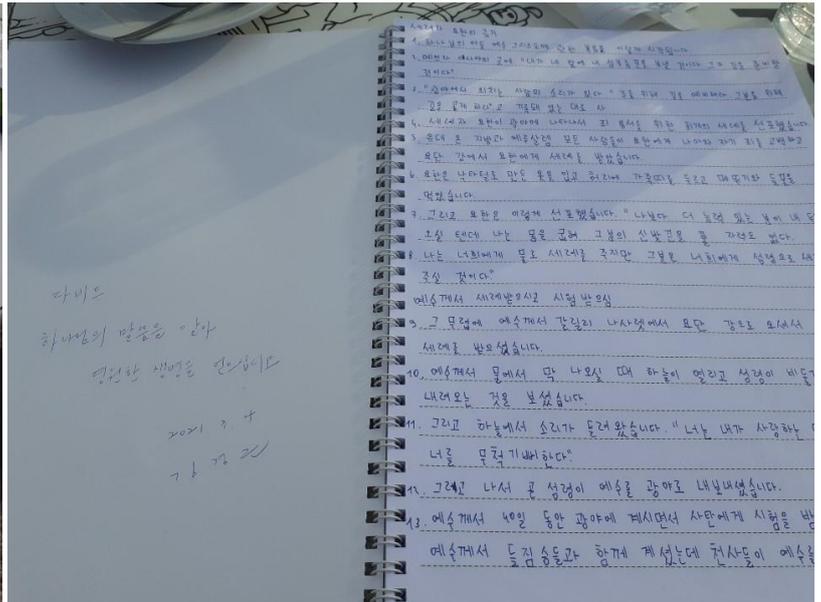
마테이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 비에르바르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를 위한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마테이가 현재 폐혈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 오기 일주일 전 그 가정을 방문한 지 겨우 열흘이 조금 넘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마테이는 정신병 전력이 있었는데, 아픈 어머니를 돌보던 중 정신병이 재발했고, 하루 만에 폐혈전증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나 크로아티아 보험이 없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학교 학생 중에 다비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읽기 수업을 통해 2년 동안 성경을 배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이며 자신의 무신론적 세계관에 대한 신념도 확실합니다. 성경읽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쓰기도 함께 시키는데, 다비드가 매 주마다 꼬박 꼬박 써 오더니 어느 날은 마가복음 전체를 다 필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겨울, 손수 자신이 필사한 한글 마가복음 낱장을 모아 이번 새 학기 책을 만들 때 보내 제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물로 주면서 우스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분이 네게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이 필사 책이라도 보여 드려!!"라고... 그리고 책을 주며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퉁이에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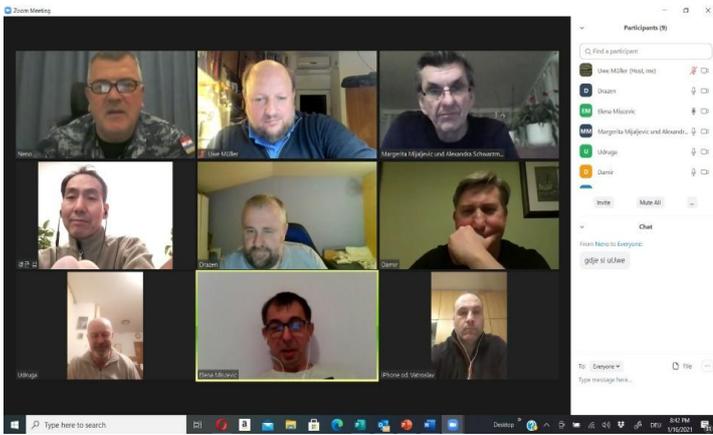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마가복음 다비드 필사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군선교회 온라인 모임



마테이 여동생 이바와 그녀 딸 마사

## 5. 선교사 가정, 자녀

언제 가부터 시작된 저의 약함은 가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을 하거나 신경을 쓰면 거의 집에서 누워있다시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러도, 저녁에는 녹초가 되었고, 페트리냐를 다녀오면 그날은 거의 누워 쉬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바닥이 난 것이지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분투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육신과 감정, 정신은 자꾸 무력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들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자꾸 "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꾸 누워만 있는 모습만큼 황망한 광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여 치료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저의 이런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도 많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그레브에는 현재 두 딸 아이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딸 영은도, 그리고 막내 딸 영진도.. 막내 딸은 이번 6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시험(마투라:수능)을 쳐야 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지만 '일보후퇴 이보전진'을 기약하며, 주께 맡기고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성인이 되고 진학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큰 딸애는 벌써 진학을 해야 했지만, 입학 허가를 받고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 요청 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 그리고 학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겐 모든 것이 가할 줄 믿습니다. 두 딸 아이들이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꿈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첫 인생의 발판이 마련되길 중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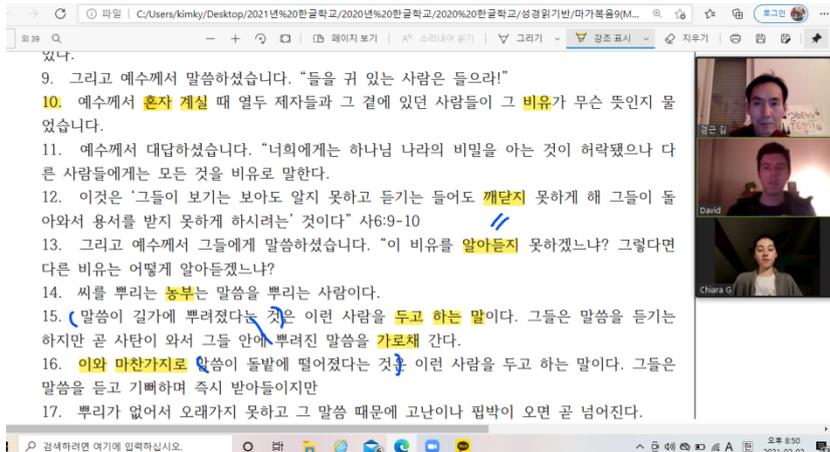
주일 예배 전



아내 생일 및 21주년 결혼 기념일

## 6. 기도 제목

- 김경근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30일 진료 후 검사와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내 문정미 선교사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에 기쁨이 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체류 3개월 동안 큰 치료 없이,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강건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그레브 한인교회와 한글학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코로나19와 여러가지 많은 장애가 있지만, 교회와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전파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충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갈 때까지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마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장래에 저와 복음 사역에 함께 세우길 기도하는 주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그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경청하며, 성경적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2주전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그가 내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영으로 낳은 아들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 읽기반을 통해 만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읽기반을 통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다비드, 키아라, 안토니아, 블라즈, 파올라, 이바)
- 영은이 영진이 그리고 이삭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딸 아이들의 진학과 필요한 재정, 그리고 암스텔담에서 학업하며 지내는 둘째 이삭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 되어 주옵소서.



성경읽기 온라인 수업



자가 격리

저희는 이달 27일(토) 자가격리가 끝이 납니다. 30일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후 고향 대구에 내려가서 심과 회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몸이 회복되고 치료의 경과를 보면서, 이후 동역자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면 뵙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제약이 있고 또한 주의가 늘 필요한 상황이니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로 또 메일과 카톡(ID: abrahamkimhr)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070 4898 1159(인터넷 전화)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현재 제가 있는 상계동 선교관 전화 번호는 02 6431 9764입니다(3월 31일까지).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게 되면 카톡 프로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의 격리기간 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검사와 치료에 관해서는 경과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3월 24일  
서울 상계동에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드림